

KCC 안방 대 반격...기사회생

에잇 38점 · '고졸' 송교창 결정적 2점 오리는 5차전 94-88

프로농구 전주 KCC가 벼랑 끝에서 살아 남았다. KCC는 27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과의 2015~2016 KC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4선승제) 5차전에서 안드레 에잇의 가공할 공격력과 고졸 신인 송교창의 깜짝 활약을 앞세워 94-88로 승리했다.

1승3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KCC는 안방에서 반격하며 기사회생했다. 시리즈 전적 2승3패로 여전히 열세지만 일단 오리온에 기울었던 분위기를 바꿨다.

에잇은 38점(9피니시)을 몰리며 위기에 빠진 팀을 구했다. 전대풍도 20점을 지원했다. 지난날 삼일상고를 졸업한 신인 송교창(7점)은 승부차이던 4쿼터 종료 43초를 남기고 결정적 2점을 올렸다.

오리온은 그동안 성공적이었던 에잇 수비에 실패하며 고전했다. 조 잭슨(32점 6 어시스트)과 이승현(23점 6리바운드)이 분전했지만 꾸준했던 애런 헤인즈(11점)가 부진했다.

양 팀의 6차전은 오는 29일 오후 7시 오리온의 홈 고양체육관에서 벌어진다.

KCC는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다. 수비 전문 신병호를 대신해 김지후를 투입해 외곽 공격을 강화했다.

에잇과 페인트 존의 상승진, 허버트 힐에게 물리는 수비를 분산하고 돌파를 좋아하는 에잇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KCC는 전대풍과 김지후의 3점포와 에잇의 공격을 앞세워 1쿼터에 31-19로 크게 앞섰다.

2쿼터에서는 잠잠했던 김효범까지 외곽포를 지원했다.

오리온은 내외곽에서 균형을 이룬 KCC

수비에 애를 먹었다. 공격에선 이승현의 3점슛으로 겨우 맞섰다. KCC가 전반에 55-37, 18점차까지 앞섰다.

그러나 오리온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3쿼터 들어 잠잠했던 외곽포와 속공이 살아났다.

잭슨 김동욱 이승현이 3점슛 4개를 퍼부었다. 잭슨을 중심으로 한 속공에 KCC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승현은 적극 가담으로 이 쿼터에서만 12점을 올렸다.

KCC는 에잇의 일대일 공격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었다. KCC가 3쿼터에 넣은 15점 중 11점을 혼자 넣었다.

KCC는 3쿼터에서 70-68, 2점차까지 쫓겼다. 전반에 벌었던 점수를 3쿼터에서 거의 잃었다.

오리온의 기세는 매서웠다. 4쿼터 1분34초 만에 잭슨이 자유루 2개를 모두 넣으며 72-70 역전에 성공했다.

KCC는 에잇의 특점으로 다시 균형을 맞췄고, 이후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다.

오리온은 고비에서 문태종이 3점슛 2개를 쏘았고, KCC는 가장 확률이 높은 에잇을 활용해 주고받았다.

오리온은 종료 2분여를 남기고 문태종과 이승현이 2대2 플레이를 하던 중 공을 흘리는 실수를 범했다. 에잇이 이를 가로채 속공으로 연결해 84-82로 앞섰다.

승부를 결정지은 건 고졸 루키 송교창이었다. 88-84로 불안하게 앞선 상황에서 송교창이 종료 43초를 남기고 팀 인을 성공해 오리온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오리온은 이어진 공격에서 잭슨의 3점슛이 이승현이 손에 걸려 공격권을 넘겨줬다. /김민근 기자



KCC는 27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과의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5차전에서 94-88로 승리했다



지난 1월 창단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성적 우수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이하 단풍미인씨름단)이 강원도 인제군 다목적경기장에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 70회 전국 씨름 선수권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에 따르면 일반부 개인전에서 경장급 최기복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 이봉양 선수가 3위에 올랐다.

선수관부에서는 소장급 이병주 선수가 2위, 용사급 박상구 선수가 3위의 성적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김생기 시장은 "단풍미인씨름단이 창단 후 두 번째 출전에서 좋은 성적을 차지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각종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지역아미지를 높이는 물론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훈련장이 완공돼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해지면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은 지난 1월 29일 창단 후 2016 흥성 설날장사 씨름대회에 첫 출전해 한라군 박정 의 선수가 4등에 오른데 이어 이번 두 번째 출전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저력을 과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U-19 축구 대표팀 독일 평가전 아쉽게 패배

내년 국내에서 열린 U-20 월드컵 준비에 한창인 U-19 축구 대표팀이 독일에 아쉽게 패했다.

인익수 감독이 이끄는 U-19 대표팀은 27일(한국시간) 독일 임펠링에서 열린 독일 U-19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1-2로 졌다. 진짜 승부인 U-20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원정길에 오른 한국은 비록 패했지만 강호 독일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자신감을 쌓았다. 선제골은 한국이 가져왔다. 전반 13분 만에 이도준(승선대)이 독일의 골문을 열었다.

반격에 나선 독일은 전반 42분 균형을 맞춘 뒤 후반 26분 세드리 토이허르트의 역전골로 경기를 뒤집었다.

한국은 오는 29일 독일 U-19 대표팀과 2차전을 갖는다. 이후 분데스리가 명문 살게머 U-19팀 등을 상대한 뒤 다음달 7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tvN '응답하라 1988' 케이블 방송 드라마부문 대상

예능 SBS플러스 '현정의 톨' 등 각 부문별 우수작 시상

신드롬을 일으킨 tvN '응답하라 1988'이 케이블 방송 대상 2016에서 드라마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25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시상사에서 예능부문 대상은 SBS플러스 '현정의 톨'이 받았다.

교양다큐·부문 대상은 YTN사이언스의 '대한민국 과학자', 어린이부문대상은 애니박스의 '꼬꼬 속담 과학수사대', 음악부문 대상은 엠넷의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가져갔다. 뉴미디어부문 대상은 드라마편의 '유일립지', 글로벌부문 대상은 UMAX

의 '코리아 푸드 메이드 심플' 시즌2와 MBC뮤직의 '한중합작 슈퍼아이돌'이 따냈다. 기획부문 대상은 tbs교보방송의 '대중가요 서울을 노래하다', KBS조이의 '우리가 응원한다. 청춘하라'에게 돌아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특별상은 코미디 TV 맛있는 녀석들이 받았다.

케이블스타상은 베스트 연기자 박해진, 베스트 MC 신동엽, 라이징스타 류준열, 류혜영 이진호, 인기스타 라미란 이수근, 베스트캐플 오창석 이태임, 베스트 캐릭터 김동욱 이청아, 공감스타 윤진서, 맛있는

스타 김준현 유민상 김민경 문세윤 베스트 코메디언 이국주, 케이블TV음악PD가 선정된 최고가수 트와이스 '인피니트' 제시, 한류가수 B.A.P, 핫이슈예능인 최현석, 1인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이 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채널부문대상은 tvN이 받았다. VOD 부문은 드라마대상 CJ E&M의 '응답하라1988', 예능부문 대상은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 영화부문 대상은 외유내강의 '베터링', 어린이 부문 대상은 초이락컨텐츠소프트의 '헬로카봇'에게 돌아갔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은 케이블TV광주 방송 진호림 국장 KBSN 서경원 실장 아리스그룹코리아 선현수 이사, 씨엔엠 강대

일 실장, 티브로드한빛방송 이광영 팀장, 대원방송 한홍주 본부장 CMB한강케이블 TV 조훈 본부장이 받았다.

방송홍신위원회 위원장 표창은 한국뉴시체널 나체제 대표, 티브로드 전영일 상무, C헬로비전경남방송 우영상 본부장, 씨엔엠 박희국 본부장, SBS골프채널 임정민 팀장, JCN울산중앙방송 김기하 국장, 현대HGN동작방송 최준무 부국장이 차지했다.

/인진수기자

6G 연속 안타 추신수, 2루타 · 볼넷...타율 0.333

'추추 트레인'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장타를 때려내며 6경기 연속 안타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카츠데일 스포츠필드에서 벌어진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2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2루타) 1볼넷을 기록했다. 안타와 볼넷으로 6경기 연속 안타 행진과 함께 멀티 홈런에 성공했다.

추신수의 타율은 종전과 같은 0.333(30타수 10안타)이다. 1회초 무사 1루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상대 우완 선발투수 채드 벤티스로의 2구째 빠른 공을 때려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만들었다.

1-2로 역전을 당한 뒤 다시 2-2 동점을 이룬 5회에는 2사 주자 3루에서 풀 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으로 출루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